

# 동남아 불자들의 법당 마련 도와주세요



지난 5월 의정부 모 사찰에서 열린 미얀마선원 개원식에 참석했던 동남아시아 스님들과 불자 노동자들의 모습.

“동남아시아에서 온 불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법당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동남아시아 불자 노동자들의 의지적인 미얀마선원을 운영중인 주지 산디마 스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본지 487호(8월 18일자)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소개된 후 1500만원이 모였습니다.

최근 의명을 요구하는 한 비구니 스님이 1,000만원을 쾌척했으며, 십시일반 동참한 불자들의 정성도 500만원이나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 지원 불교인권위원회 후원장 지원, 미얀마선원장 산디마 스님은 (가칭) 미얀마 한국선원 건립불사 추진부를 최근 구성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미얀마 한국선원 건립불사 추진부 사무총장 도관 스님은 “미얀마 산디마 스님이 한국에 와서 동남아 노동자들에게 불교 신앙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접하고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동남아 불자들이 신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한국불자들이 적극 도와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공간에도 후원유치금이 할

## 사연 소개된후 성금 답지...아직은 부족 미얀마 한국선원 건립추진본부 구성

발한다. 네티즌들은 불교계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얀마선원 돕기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선원은 현재까지 들어온 1500만원의 성금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공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고 선원에 몸을 의탁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벌써 10~13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500만원의 성금으로 법당을 조성하고, 생활용품 구입한다고 해도 전세 보증금 3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상황.

미얀마선원은 한국의 독자가 3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2~4년 계약한 뒤, 계약이 끝나면 되찾아가는 방식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얀마선원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은 “산디마 스님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위가 불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만큼 조계종단 명의로 미얀마선원을 개설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선원 주지 산디마 스님은 “선원

은 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기 능과 불법을 배우는 법당으로 운영 하겠다”며 “그동안 어렵게 지탱해온 미얀마 선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한국불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디마 스님은 1998년 한국에 입국한 뒤 순천 송광사와 제주 남국선원에서 여러 차례 안거에 드는 등 2년간 한국 불교를 공부했다.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지처를 찾지 못해 개종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2000년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서 40평 규모의 한옥을 임대하여 미얀마선원을 개원했다. 이후 운영상 어려움으로 서울 암사동으로 미얀마 선원을 옮겼다가 올해 5월부터 의정부 모 사찰에서 미얀마 선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간을 빌려줄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미얀마선원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의 02) 734-6401, 031)821-5302. 후원계좌: 조흥은행 983-01-003852 예금주 산디마

김원우 기자

### ■ 나눔의 손잡기 현금

호놀룰루 장지원보살 - 200달러 (21만원)  
청주 광덕사 일봉스님 - 33만8천 890원  
총누적금액 22,443,470원

### ■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 헌혈증 기증

대전 용화선원 주지 정일 스님이 헌혈증 5장을 보내왔다. 파주 전차대대 박동재 하사를 비롯 군장병 전호승 조만재 이종환 하명호씨등 5명이 헌혈증 5장을 본사에 보내왔다.

### ■ 쌀 기증

서울 동대문구 정안사에서 쌀 2박스(1kg들이로 포장된 공양미 20개)를 포장해 본사에 보내왔다. 이 쌀은 경남 양산에서 수행중인 정묵 스님에게 전달했다.

### ■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 보내드립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 ■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정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 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훈예전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11년간 무기수 29명과 자매결연한 최태향 보살.

## 11년째 무기수들의 엄마노릇

###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최태향 보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들, 만나보면 참 순수하고 어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한순간 불쑥 올라오는 마음을 못 다스려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93년부터 대구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1년째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재소자 29명과 자매결연을 한 뒤 보살과 은 최태향(64·대구 교도소 교정위원회 복지분과 회장)보살은 이렇게 무기수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읽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주봉이는 문맹자였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주봉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할 겁니다.”  
자식을 대하듯 서슴없이 무기수인 김주봉(54세) 이름을 부르는 최 보살은 5년 전 조동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참고서를 몽땅 사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이끌어준 장본인이다.

최 보살이 자매결연한 재소자와 만날 수 있도록 교도소로부터 할애받은 시간은 한 달에 한번, 2시간이 전부다. 최 보살은 이 날이 되면 떡, 과자, 사랑 등을 가득 싸들고 면회를 간다. 이날 재소자들은 모처럼 자유롭게 속마음

을 내어 보이며 온갖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둘러앉아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도 한다.

“죽을 때까지 내 몸이 남아 있는 한 방문을 계속할 것”이라는 최 보살은 재소자들이 오직 이 날만을 기다리며 보내는 것을 잘 알기에 교정위원으로 활동한 1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러 본 적이 없다.

또 교도소 내 초과일 행사, 체육대회, 명절, 수계법회에도 열심히 다. 명절이 되면 재소자들을 위해 내의 준비하는가 하면 재소자들이 아프면 약도 사다주고, 치료비도 틈틈이 대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 자로서 역할이다. 대부분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사랑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만큼 의논할 상대도 없다. 최 보살은 이들의 속마음 하나하

나를 들어주고 이해해준다. 때로는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때로는 연한 선생님이 되어 따끔하게 나무라기도 한다.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심하고 자족할 줄 알라고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최 보살과 인연을 맺었다가 출소한 재소자들은 하나같이 사회 적응이 빠르다.

최 보살은 교도소 내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불자와 스님들의 수가 너무 적고 미약하다고 안타까워 한다.

대구 교도소의 경우 3,000여명의 재소자 중 약 700여명이 불자다. 그러나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스님 7명에 재가자 20여명만 전부다. 또 자매결연한 사람도 불과 7명뿐이다.

“들어보면 크게 도와준 것은 없어도 어떻게든 안 빠지고 활동해 온 지난 11년간의 삶이 보람으로 남는다”는 최 보살은 “육바라밀 중 첫 번째가 보시인 만큼 좀더 많은 불자와 스님들이 동참하여 교도소에 복역중인 어린이와 청년들의 마음을 희망과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 어떻게 참여하나
  -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 분사·연고사할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1주좌 1만원입니다.
  - ◇ 보금기간: 2004년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어떻게 진행되나
  -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 매달 한번호 동점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 ◇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사무소)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당부드립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